

“그 옛날 풍류의 그윽함 느껴보세요”



풍류회 '죽선방' 회원인 고영란(해금), 정성수(대금), 조창훈(대금), 서담(가야금)씨(사진 왼쪽부터)

국악은 보통 정악과 민속악으로 나뉜다. 요즘에 우리가 많이 듣는 산조가 민속악의 대표 장르다.

정악은 서양음악의 클래식과 비유되는 정통궁중음악으로 제례음악, 영산회상, 여민락 등이 포함된다. 정악은 고풍스러운 이미지인데 반해 한편으로는 고답적인 느낌도 있다. 그래서 최근엔 정통 정악 연주자를 만나기 어렵다. 특히 전라도 지역은 민속악이 강세고 최근에는 퓨전국악이 인기를 얻다보니, 정악이 설 자리는 그 만큼 좁아진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정통 정악 연주단이 새롭게 시작을 알렸다. 대금 명인 조창훈(중요무형문화재 제20호 대금정악 예능보유자) 선생이 이끄는 풍류회 '죽선방(竹簫房)'이다.

“정악을 가르치던 선생님들이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정악은 산나물같은 맛이라고 하셨죠. 반면 산조 등 민속음악과 창작 음악은 고기 맛이라고 하셨어요. 산나물도 고기도 다 맛있지만 특색이 있지요. 고기맛은 순간 맛있게 먹을 수 있지만 오래 먹기는 힘들죠. 반면 산나물은 먹을수록 그 맛을 알게되고, 뉘고 쓰고 그러지만 오래 씹다 보면 단맛이 나죠. 먹을수록 진미라는 겁니다.”

지도위원으로 참여하는 순천 출신 조 명인은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단장을 맡는 등 지역에서 제자들을 많이 길러냈다. 지난해 전남대 국악과를 정년퇴임한 가야금연주자 성심은 선생이 함께 지도위원으로 참여했다.

“옛날 중산층 이상 부유한 사람들이 국악을 듣고 즐기던 장소를 풍류방이라고 했어요. 제가 대금을 연주하니 대나무와 인연이 있죠. ‘죽선방’은 50년 동안 제 당호(堂號)입니다. 어렵게도 학교에서 궁중음악 등은 배울 기회가 별로 없어요. 제자들도 성장하고 했으니 전라도에도 풍류방을 하나 만들어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광주공원에 안에 풍류방이 있었는데 그 분들이 돌아가시고 나서 풍류의 맥이 끊겼어요. 다시 맥을 이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죽선방’에는 정성수·채광자·성수봉·김희동·문병만·김건형·정지웅·신선민(이상 대금), 성심은·서담·황난희·이화림(이상 가야금), 엄애란·박해정·박영빈(이상 거문고), 신경환·박정미(피리), 고영란·김미정(해금), 김미혜(양금), 이성순·한소리(장가), 최용(장고)씨 등 26명이 함께한다.

모임 회장을 맡고 있는 정성수씨는 유일한 비전공자다. 전남대 마취통증의학과 교수인 정씨는 15년 전 처음 대금을 접한 후 대금의 매력에 푹 빠졌고 지금은 중요무형문화재 제20호 대금정악 이수자다. 대금 연주단체 ‘여울림’ 등에서도 활동하고 있다.

“산조 대금도 정악 대금도 다 배우고 있어요. 처음에는 산조 대금이 참 좋았습니다. 한데 시간이 갈수록 정악

순천출신 대금 명인 조창훈 ‘죽선방’ 결성

정통 궁중음악 연주...대금·가야금 등 26명 참여

26일 빛고을국악전수관서 창단 연주회

대금에 더 마음이 갔어요. 무언가 무게감도 느낄 수 있고, 마음의 여유감을 느낄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정성수)

4년 동안 함께 모여 공부한 회원들은 ‘풍류회 죽선방 첫 번째 풍류마당-가추회상’이라는 제목으로 창단연주회를 갖는다. 26일 오후 7시 빛고을국악전수관 공연장.

“나이 들면 사람들이 정악으로 돌아오는 경향이 있어요. 이유는 간단하죠. 외국에 가면 김치찌개, 된장찌개 생각나는 것처럼 오랫동안 민속악이나 창작음악에 관심을 가지며 다양한 시도를 해보다 나이 들면 우리 고유의 정악이 떠오르게 되고. 무엇보다 젊은 세대와 함께 공부하며 연주하는 게 고맙고 대견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꾸준히 공부하기 어렵거든요.”

‘죽선방’은 정기연주회와 함께 앞으로 찾아가는 음악회 등 다양한 공연을 통해 정악의 정취를 널리 알릴 계획이다. 전석 무료. 공연문의 062-350-455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매장시편’의 임동화 시인이 신작 ‘같은 한사코 길을 그리워한다’(신생)를 펴냈다. 그동안 시간과 순간에 천착해온 시인은 이번에도 동일한 시선으로 시적 형상화를 꾀한다. 시인은 첫 시집 ‘매장시편’에서부터 과거의 집요한 그림자를 건넌다고 초극하는 과정을 그려왔다. 마치 철학자 하이데거에게 시간이 이해의 지평이었던 것처럼 임 시인이 상정하는 시간도 동일한 의

미로 얽힌다. 표제시 ‘같은 한사코 길을 그리워한다’에는 시간에 대한 사유와 고뇌가 오롯이 담겨 있다. 치열함은 이미지와 맞물려 잔잔한 울림을 준다. “...해피엔드로 끝나기 마련인 싸구려 영화와 달리, 어떤 길이란 늘 아직 때가 이르지는 출발 혹은 이미 지나쳐버린 종말을 들리고 싶은 비밀처럼 감추고 있다...”

시에 드러난 길은 삶의 길인 동시에 생성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출발과 종말을 품고 있으면서도 정점으로 뻗어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시인은 해설에서 “임동화 시인의 순간에 대한 천착은 고상한 형이상학적 취미가 아니다”며 “쉽없이 도약하고 약동하는 자유의 생성”이라고 의미를 평한다. /박성천기자skypark@kwangju.co.kr

현장의 ‘눈’

25일~3월 3일 광주·전남 보도사진전

‘현장의 눈빛’ 2015 광주·전남보도사진전이 25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광주신세계갤러리에서 열린다.

한국사진기자협회 광주·전남지회(회장 나명주) 주최로 열리는 전시에는 지난 한 해 동안 광주지역 일간지 사진기자들이 국내·외에서 취재한 사진 100여 점이 전시된다.

지난해 온 국민을 슬픔에 빠뜨렸던 세월호 침몰사고를 비롯해 지난 한 해 동안 사진기자들이 발로 뛰며 취재한 광주·전남지역에서 발생한 다양한 사건과 사고를 만날 수 있다. 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의 변모과정,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의 준비과정 등과 관련한 취재사진 및 광주·전남지역의 아름다운 풍광 등이 담긴 사진들도 함께 전시된다.

광주·전남사진기자회 나명주 회장은 “이번 전시작품들은 사진기자들이 현장에서 담고 노력으로 만들어진 소중한 결과물이다”며 “작품 하나하나를 통해 역사의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진기자들의 열정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에 이어 다음달 5일부터는 전남도청 윤선도홀에서 일주일간 2차 전시가, 3월16일부터는 담양 국제청소년교육재단 내 유당갤러리에서 약 40일간 전시가 될 예정이다.

한편 1993년 아시아나 항공 추락사고를 취재하다 순직한 박경완 기자를 기리기 위해 제정돼 올해로10회째를 맞는 ‘박경완 기자상’에는 동아일보 박영철 기자가 선정됐다. 박 기자는 지난해 11월 광주시청에서 열린 예정이던 호남권 공무원 연금 개혁 포럼에서 공무원 노조들과 관계자들의 몸싸움을 생생히 보도했다. 시상식은 25일 11시에 개막식과 함께 열린다. 문의 062-360-1271.

/김정민기자 kki@kwangju.co.kr



광주일보 김진수 기자 ‘가을비’

시간에 대한 ‘思惟’

〈사유〉

임동화 시인 ‘같은 한사코...’ 출간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사리

연회장 세미나 가족모임 상견례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www.geumsoojang.com 각종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

이태리 가구 40% OFF SALE

www.hong79.com(홍친구닷컴) 신상품 다량 포함

광주광역시 동구 장동로터리 58-15(동구청옆) 가구빌딩 ☎ 1899-0240 이태리가구 직수입 판매 3월 19일까지